

영화 '오케이 마담'...엄정화·박성웅 코믹 '부부 케미'

국내 최초 고공 납치극...8월 개봉 예정

웃음·스릴 보장...완벽 팀워크 자랑

영화 '오케이 마담' (감독 이철하)이 빵 터지는 코미디와 심장이 졸깃해지는 액션을 동시에 선사하는 1차 예고편을 전격 공개했다.

24일 메가박스중앙(위)플러스엠 가공개한 '오케이 마담'의 1차 예고편은 코미디 영화답게 시원시원한 웃음을 예고하며 예비 관객들을 사로잡는다. 난생처음 해외여행을 떠난 꽈배기 맷집 사장 미영(엄정화)과 사랑하는 아내 미영밖에 모르는 철부지 남편 석환(박성웅)이 우여곡절 끝에 비행기 텁승에 성공하는 모습은 보는 이들의 웃음을 유발한다.

들뜬 마음도 잠시, 한 명의 타겟을 잡기 위해 비행기를 납치하는

테러리스트 철승(이상윤)의 살벌한 등장은 급속도로 영화의 분위기를 뒤바꾼다. 특히 비행기 납치범의 공격을 열렬결에 막아나는 미영의 모습과 "숨겨진 본능이 깨어난다"는 강렬한 카피는 평범하게만 보였던 미영의 반전 액션을 예고할 뿐만 아니라 웃음과 스릴을 동시에 보장하는 역대급 액션 코믹 버스터의 탄생을 기대하게 한다.

여기에 첨보 요원을 꿈꾸지만 현실은 구박덩어리 신입 승무원 현민(배정남)의 어디로 훨지 모르는 엉뚱한 행동은 허를 찌르는 웃음을 유발하고, 신분을 숨긴 채 하와이 행 비행기에 텁승한 미스터리한 승객(이선빈)의 수상한 눈빛은 앞으

로 펼쳐질 이야기에 대한 궁금증을 증폭시킨다. 한편 '오케이 마담'을 통해 다시 한번 이미지 변신을 예고한 박성웅은 "‘오케이 마담’은 웃음과 액션이 모두 있는 종합 선물 세트 같은 작품이다.

온 가족이 극장에 와서 편하게 즐길 수 있는 영화"라며 작품을 향한 무한한 애정을 보였다. '오케이 마담'의 연출을 맡은 이철하 감독 역시 "시나리오 단계부터 극의 리듬감과 웃음 포인트에 세심하게 신경 썼다.

피도 눈물도 없이 강렬한 액션과 코미디로 화면을 꽉 채워주는 영화"라며 '오케이 마담'에 대한 남다른 자신감을 표했다.

이렇게 완성된 국내 최초 고공 납치극 '오케이 마담'은 엄정화, 박성웅, 이상윤, 배정남, 이선빈까지 명실상부 충무로 대세들과 최강 제작진의 완벽 팀워크를 자랑하며



비즈니스 클래스급 편안한 웃음은 물론이고 숨 쉴 틈 없이 몰아치는 액션 터키터카를 선사할 예정이다.

한편 '오케이 마담'은 8월 개봉 예정이다.

뉴스1

김현철·김신영 '골든마우스' 브론즈마우스 수상

7월 1일 유튜브 '봉춘라디오' 채널 통해 생중계 예정



DJ 김신영, DJ 김현철이 브론즈마우스를 받는 '2020 MBC 라디오 골든마우스 어워즈'가 오는 7월 1일 유튜브 '봉춘라디오' 채널을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다.

MBC는 20년 이상 공헌한 진행자에게는 브론즈마우스(BRONZE MOUTH)를, 10년 이상 공헌한 진행자에게는 브론즈마우스(GOLDEN MOUTH)를, 10년 이상 공헌한 진행자에게는 브론즈마우스(GOLDEN MOUTH)를 수여해오고 있다. 김신영은 2007년 10월 표준FM '심심타파'를 시작으로, 2008년 '정오의 희망곡'로 이어받은 마이크로 올해 꽉 찬 10년 차 DJ가 되었다. 김현철은 1994년 4

월 '디스크 쇼'의 DJ로 심야를 평정한 후, FM4U '오후의 발견'을 거쳐 현재 '골든디스크'까지 10년의 시간을 청취자들과 함께 하고 있다. 이에, 김신영과 김현철이 '2020 MBC 라디오 골든마우스 어워즈'의 브론즈마우스 부문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2020 MBC 라디오 골든마우스 어워즈' 제작진에 따르면, 이번 시상식은 코로나19의 여파로 청취자 초청 행사를 진행할 수 없는 아쉬움을 달래기 위한 각종 장치를 동원할 예정이라고, TV 촬영에 활용되는 상암동 본사에서 열리며 유튜브 봉춘라디오 채널을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다.

엠넷 '아이랜드' 측 "시청자 투표...공정성 위해 노력"

내일 오후 11시 첫 방송

엠넷 '아이랜드' 측이 데뷔 인원 선발 과정에서 시청자 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24일 오전 온라인으로 생중계된 엠넷 서바이벌 프로그램 '아이랜드'(I-LAND) 제작발표회에서 정형진 상무는 프로그램에서 공정

성을 담보로 한 시청자 투표 진행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상무는 "글로벌 시청자 투표 진행할 예정"이라며 "절차를 밀촘 드리기는 적절치 않지만 공정성,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외부 풀플랫폼 위버스를 통해 투표를 진행하고, 외부 참관인 제도를 반영해 검수까지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아이랜드' 지원자들에 대한 평가는 투표 외에 여러 기준이 복합적으로 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아이랜드'는 CJ ENM과 빅히트엔터테인먼트가 지난해 3월 설립한 합작법인 '밸리프랩'의 첫 번째 프로젝트로 차세대 K-POP 아이돌을 탄생시켜 나가는 과정을 담은 서바이벌 프로그램이다. 오는 26일 오후 11시 처음 방송된다.

공민지 "2NE1, 기회 된다면 우리답고 쿨하게 뭉치고파"



24일 패션 매거진 나일론은 흘로서기로 다시 한번 새 출발을 알린 공민지와 함께한 화보를 공개했다.

공개된 화보 속 공민지는 내추럴한 무드로 본연의 본인 모습을 보여줬다. 공민지의 당당함이 빛나던 현장이었다는 후문이다.

이어진 인터뷰에서 공민지는 전 회사와의 이별 이후 어떤 시간과 깨달음을 겪었냐고 묻자 "여러 사건과 상황을 겪으며 인간으로서 더

성장한 느낌이 들었다. 이제는 모든 걸 스스로 할 수 있겠구나. 더 이상 누군가의 어떤 무엇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갈 수 있는 길을 찾았다는 생각. 지금의 나는 더 단단해졌다"라고 답했다.

다시 한번 2NE1의 무대를 볼 수 있느냐는 물음에 "멤버들끼리도 '그래, 뭐 할머니 되기 전에 해야지' 이런 식으로 장난칠 때가 있다. 기회가 된다면 우리답고 쿨하게 뭉치고 싶다"라며 웃었다.

'편애중계' 7월 10일 종영 "시국 고려 재정비 결정"

MBC '편애중계'가 트로트 왕 중왕전 특집을 끝으로 재정비에 돌입한다.

오는 7월 10일 방송되는 35회로 시즌을 종영하는 MBC '편애중계'는 인생이라는 링 위에서 작은 도전을 앞두고 있는 주인공들을 위해 '편애 중계전'이 달려가, 오로이 내 선수만을 편애하고 응원하며 그들의 도전을 중계하는 세상 어디에도 없던 예능이다.

지난 해 거제도 섬총각들의 미팅을 펼친 파이럿으로 시작해 뜨거운 반응 속 정규 편성을 확장, 그 후 약 9개월 동안 시청자들을 만나 각박한 세상 속 이유 불문 '내 편'을 들어주며 유쾌한 위로를 선물해온 금요일 대표 힐링

프로그램.

특히 '편파 중계'를 비틀어 '편애 중계'를 탄생시킨 독특하고 신선한 기획으로 호평 받았고, 농구팀 서장훈과 불, 축구팀 안정환과 김성주, 야구팀 김병현과 김제동이라는 스포츠 레전드 해설 위원과 프로 예능꾼 캐스터로 구성된 '편애 중계전'의 캐릭터리와 입담이 폭소를 안겼다.

그뿐만 아니라 '편애중계'의 시그니처로 자리 잡은 미팅 특집, 재미와 감동을 잡은 행복한 놀이 고사 특집, 자체 최고 시청률 7%(닐슨코리아 수도권 기준)를 두 번이나 타이로 기록하며 큰 사랑을 받은 트로트 특집 시리즈를 비롯해 '이번 생은 망

했다' 대회와의 컬래버레이션, 주역의 탑골 가수왕, 박진감 넘쳤던 흡소픽 판매왕 등 시청자들을 웃기고 감동시킨 다양한 시도들이 이어져 왔다.

'편애중계' 제작진은 "더 친선한 재미를 위해 재정비 기간을 갖기로 판단했고 일반인들의 사연을 모집하는 특성상 현(코로나19) 시국 역시 고려했다"며 "마지막 방송까지 큰 관심과 애정으로 지켜봐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오는 7월 10일 금요일 오후 9시 50분 트로트 왕중왕전 마지막 이야기로 시즌을 종영하는 '편애중계'가 향후 어떤 모습으로 돌아올지 기다리고 있다.

재개봉 '다크 나이트' 3부작, 특별한 포스터 이벤트



놀란 감독의 야심작으로 '다크 나이트' 3부작의 인기 이상의 흥행을 예고하는 '데넷'은 제3차 세계 대전을 막기 위해 현재 진행 중인 미래를 바꾸는 멀티 장르 액션 블록버스터다.

하이스트 무비에 스파이 액션에 더해진 혁신적인 블록버스터로 해외로 케이션 사상 역대 최대 규모인 세계 7개국에서 IMAX와 70mm 필름 카메라로 촬영해 역대급 스케일의 시공간을 넘나드는 국제적인 첨보전을 완성했다.

존 데이비드 워싱턴, 로버트 페틴슨, 케네스 브래너, 엘리자베스 데비키, 애런 존슨, 마이클 케인 등 배우가 출연한다. '덩케르크' '애드 아스트라' '007 스페셜' 호이트 반 호이테마, '블랙 팬서' 러드윅 그레셤 음악, '덩케르크' '인터스타일' '다크 나이트 라이즈' '나단 크로리 미술', '유전' '결혼 이야기' 제니퍼 레임이 편집을 맡았다.

'데넷'은 특히 세계 영화 팬들이 뽑은 2020년 최고 기대작이자 코로나 사태로 인해 침체된 전 세계 영화계에 부흥의 신호탄이 될 작품으로서 주목 받고 있다.

아직 정확한 내용이 밝혀지지 않았음에도 벌써부터 다양한 추측이 쏟아지고 있는 등 놀란 감독의 전작들과 마찬가지로 여러 해석과 놀라움을 전하며 화제를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다시 한 번 최상의 오락 영화를 완성해 세계 관객들을 위한 최고의 선물로 자리매김할 것이다.